

# 익산다이로움 혜택 이어진다

### 하반기 차등 지원 · 후캐시백 방식으로 전환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익산다이로움 혜택이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시는 다이로움을 비롯해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지난 18일 각계각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다이로움 활성화 방안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그 결과 상반기까지 특별이벤트로 진행하기로 했던 개인별 다이로움 20% 지원혜택(100만원 한도 내 충전 시 할인판매 인센티브 10% 적립, 소비촉진지원금 10%)을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 소비자에 인센티브 수혜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소비촉진지원금을 50만원

시 가점 등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인센티브 지급방식 전환에 필요한 운영대행사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인센티브 전환 및 차등 인센티브 지급은 추후 시스템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소비촉진지원금 차등적용(50만원 이내 10%,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내 5%)은 7월부터 우선 시행한다.

또한 가맹점 출입 방지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비촉진지원금 제외 업체를 5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해당 업체에서는 다이로움 충전금 사용은 가능하지만 결제금액에 대한 소비촉진금 지원은 제외된다.

앞서 시는 익산다이로움 정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 · 지역회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회계 선진지 벤치마킹,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및 운영추진위원회 실무TF팀을 운영해왔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는 지역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촌 만들기에 공헌을 기울인다.

##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

### 익산시, 비즈니스 · 마케팅 · 현장 크로스코칭 등 다양한 교육

익산시는 지역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촌 만들기에 공헌을 기울인다.

농업기술센터는 강소농 선진자 22명을 대상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강소농 경영개선 후속 교육을 내달 1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 교육은 비즈니스모델 SWOT 분석 · 실습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고객을 사로잡는 고객 만족 마케팅, 농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아이디어 도출 방법 · 실습, 성공적인 시간 관리 등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경영개선 이론과 실습 교육을 마친 후 교육생 농가 영농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장의 운영상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토론했던 현장 크로스코칭(Cross Coaching)을 실시한다.

크로스코칭은 농가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경영방식, 철학과 대응 노하우를 직접 관찰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생 간 객관적인 토론 및 분석을 통해 농장의 강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 비교해가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 12일에 진행되는 마지막 후속 교육은 그동안 배우고 실천한 내용을 토대로 자기만의 농산물에 신규성, 독창성과 진보성을 더해 새로운 농산물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발표해봄으로써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8월부터는 강소농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마케팅, 세무 법률 등을 주제로 효과적인 판매전략과 경영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폭염대비 취약 노인 보호대책 추진

군산시는 하절기 폭염 대비 ‘폭염피해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황 관리반, 음면동 관리반, 서비스 관리반으로 구성하여 폭염특보 시 피해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모니터링에 집중할 계획이다.

폭염특보 발효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재난문자시스템에 시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287명을 전원 등록해 폭염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안전확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안전확인 실시 방법, 응급처치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 폭염특보 시 취약 노인에게 안부전화를 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방문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하수관로 정비 쾌적한 환경 조성

익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전방에 걸쳐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마동과 주현동 동산동 어양동 등 일부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류식 배수설비는 하수와 빗물을 같이 처리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생활오수를 별도의 전용 우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했으며 그 결과 남부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국비 12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내 일원 6천554가구에 대한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개선되고 건물 증 · 개축이나 용도변경 시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게 되어 건물주의 청소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 ‘찾아가는 어르신 온라인 실생활 교육사업 개강’

### 군산시, 평생학습 추진

찾아가는 지역 평생교육의 바탕이 거세진다.

군산시는 온라인 생활환경에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의 실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어르신 온라인 실생활 교육사업’을 20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간 3개 지역에서 개강한다.

‘찾아가는 어르신 온라인 실생활 교육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스마트폰 및 온라인 기기 활용법 등 온라인 관련 맞춤형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이다.

이번에 개강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온라인 실생활 교육사업’은 공모를

통해 신청한 어르신 활동 지원기관 3개소, 4개 교육과정인 동시에 운영된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군산 시니어클럽, 노인 사회활동지원기관인 군산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의 배움으로 나눔을 실현하는 적십자평생대학에서 총 10주 동안 주 2회 학습하게 된다.

시는 어르신들 학습에 필요한 교육전문강사와 원활한 과정관리를 위해 학습매니저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어르신 온라인 실생활 교육사업’ 프로그램은 어르신 수준별 맞춤형교육이 실시되며, 스마트폰 기본 기능 알기, 긴급 전화 이용법, 문자 및 사진 보내기 등 SNS 활용법,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르신 대상 금융범죄인 스미싱(문자 사기) 예방법, 어플을 통한 코로나 백신 전자접종증명서 받

급, 버스타켓 예매, 군산사랑모바일 상품권 구매 활용뿐만 아니라 동네문화카페와 군산시평생학습관 교육강좌와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도 학습하게 된다.

또 어르신의 실생활 연계 학습 강화와 배움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ATM기기를 통한 입출금 · 송금 및 패스트 푸드점 키오스크(KIOSK) 기기 사용법 등 현장 체험학습을 병행해 실시한다.

온라인 실생활 교육사업의 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학습장소에서 시행정 담당자, 사업기관 실무자, 강사 및 학습매니저 등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고, 인터넷 현황 등 학습장소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청년근로자 사기진작 복지 지원

군산시의 전북산학융합원(원장 나석훈)이 미래형 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위한 간식 지원으로 일자리 현장 복지 향상에 나선다.

이번 간식 지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을 통해 군산 관내 기업에 채용된 청년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 간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장기근속을 장려하고자 기획된 복지

혜택의 일환이다.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총 13개 기업에 근무하는 89명의 근로자를 위해 1,335만원 상당의 간식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전북산학융합원은 간식 지원에 앞서 참여 청년들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간식 품목을 사전에 신청받아 청년 취향을 반영한 간식을 전달해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역 청년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참여 청년들에게 간식지원 외에도 △문화여가비 연 30만원, △자기개발비 연 50만원, △교통비 월 10만원 등의 복지혜택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유자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에 남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의회,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익산시의회 제9대 의원 당선인 25명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17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제9대 의회의 출범을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해 당선인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현황과 회기운영에 대해 안내하고 입법 및 정책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박사를 초빙해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축



익산시의회 제9대 의원 당선인 25명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17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하 인사를 나누며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위한 의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자고 다짐했다. 당선인들은 오는 7월 1일 제2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게 되며, 올 하반기에는 임시회 4회, 정례회 2회 총 여섯 번의 회기가 운영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